동안거 결제

화두와 씨름하며 '참나 찾기'

밖에서 매서운 추위가 몰아칠수록 전국 산사 선원과 재가자 선방의 수행 꽃 향기는 점점 진해져 온 세상을 맑게 한다. 19일부터 시작된 '동안거'를 맞이 한 철 공부를 시작한 수행납자들은, 세세생생을 뛰어넘는 본래 면목을 만나기 위한 정진에 시공을 잊고 화두와 씨름 하고 있다.

매일 15시간씩 15개월동안의 가행정진에 들어간 태백산 각화사 태백선원, 큰 스님들의 수행처였던 의정부 망월사 천중선원 등 전국 90여 선원 2천여 스님들과 범어사 보살선원, 서울 수선회 등 50여 재가선방의 불자들이 일제히 치열한 정진에 들어갔다.

◇유서깊은 선방 망월사 천중선원의 수행납자들.

지게진 납자들 하나 둘 눈덮인 망월사 계곡올라

○…동안거 결제를 하루 앞둔 18일 서울 도봉산 망월사 천중선원(天中禪院). 천중선원은 용성스님이, 일본의 영향으로 한국불교의 계율이 파괴되고, 선이 몰락한 것을 우려하여 1925년 '만일선회결사'를 실시했던 유서 깊은 선방이다. 이곳에는 근·현대의 대표적 고승들인 만공 한암 성월 학명 석우 고송 운봉 설봉 동산 경운 고암 금오 춘성 전강 다현 서옹 스님이 수행했다. 이런 역사성을 증명하듯 1981년 조계종립 특별수도원으로 지정됐었다.

망월사로 올라오는 원도봉 계곡은 예년보다 일찍 온 겨울을 알리려는 듯 한눈으로 소복하게 덮여있었다. 망월사로 오르는 산길은 겨울철 내내 빙판으로 덮여 있다고 한다.

오후가 되자 납자들이 하나둘 지게를 짊어지고 올라왔다. 지게에는 스님들의 걸망과 함께 겨울을 날 부식거리들이 들어있는 박스가 실려있다.

지게로 짐 옮기는 일은 망월사 천중선원에 방부들이기 위해 스님들이 가장 먼저 치러야할 일로, 이제는 전통처럼 되어버렸다.

◇천중선원에 방부들이는 스님들이 가장먼저 하는일은 지게로 안거 동안 쓸 부식을 옮기는 일이다.

망월사는 워낙 고지대에 위치한데다 바람을 바로 받는 곳이라 겨울 내내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싸워야 한다. 또 3개월 정진기간동안 지게에 부식을 실어 왕복 두 시간 거리의 암벽 빙판길을 10번이상은 오르내려야 하는 고된 올력도 감수해야 한다.

땀을 흘리며 지게를 지고 올라온 수좌들은 하나같이 "내가 먹을 음식을 직접 지어 나르며 춥고 힘들게 정진하는 것이 천중선원의 수좌들"이라 말하며 웃음을 지었다.

오후 5시가 되자 세면을 깨끗하게 마친 납자들이 선방을 청소한다.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는 동작에서 굳은 의지가 엿보인다. 저 자리에서 철통같은 무명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는 청소가 끝날 무렵 공양간에서 '땡' 하는 종소리가 산중을 울린다.

스님들은 여법하게 발우공양을 한 뒤 곧바로 큰방에서 대중공사에 들어갔다. 대중들에게 얼굴과 이름을 알리는 '첫 의식'이다. 본사와 법명을 밝히는 것으로 인사를 나눈 스님들은 동안거 3개월 대중생활의 원만한 살림을 위해 입승 철안스님이 일어나 공양주(음식), 선덕(참선지도), 다각(차 화대(난방) 종두(타종) 간병(간호)등 각 소임을 발표했다. 참선정진하며 소임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소임이 쓰여져 있는 용상방(龍象榜)에 이름을 올렸다.

19일 새벽 3시, 입지법어는 없이 천중선원의 선방문이 굳게 닫혔다. 따-따- 딱. 죽비소리와 함께 곧바로 참선이 시작됐다.

납자들은 3개월의 안거기간동안 아침예불(03시), 방선 및 대참회(05시) 조공(06시) 입선(08시) 방선 사시마지(10시) 오공(11시) 입선(13시) 방선 소임시간(16시) 약석(17시) 입선 저녁예불(19시) 방선 취침(22시)을 반복하며 일대사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정진한다.

○…지금은 없어진 '해인당'이라는 선방을 시작으로 11년째 재가선방의 전통을 지켜온 부산 범어사 보살 선방. 20일 오전., 미세한 움직임마저 소음이 되어버리게 하는 '고요의 철정'만이 선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19일 동안거 결제에 들어간 범어사 보살 선방 입방자는 52명. 최고령 박보광화(80) 보살부터 25세 최연소 입방자까지 나이를 떠난 화두 참구가 시작됐다.

결제 첫날이었던 19일에는 출가자 선방과 마찬가지로 입방자들이 모여 청중 보살(참선 대중들의 모든 일을 맡아 처리해주는 소임으로 입승이나 열중에 해당되는 소임) 소임자를 뽑았다. 새벽 2시 40분에 기상하여 3시에 입선에 들게 되는 보살들은 밤 9시 방선에 들기까지 하루 9시간 이상을 철저하게 화두를 참구하며 보낸다. 입선, 방선을 가리지 않고 화두를 챙기는 철저함은 '방선에 든다'고 표현하는 것에서 쉬이 짐작할 수 있다.

◇11년 전통의 범어사 보살선방에는 52명의 재가불자들이 동안거에 입재했다. 화두삼매에 든 불자들.

범어사 보살선방 최고령 80세 보살까지 52명 입방

10분의 짧은 방선. 김공덕행(76) 보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입선 때의 살벌하리만치 고요했던 모습과는 달리 해맑은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지장보살을 부르는 이놈이 뭐꼬? 화두를 내면에서 항상 챙기고 있지요. 혜암스님(전 조계종 종정)께 화두를 받아 벌써 11년째 참구중이라오."

공덕행 보살처럼 범어사 보살선방에는 공부를 시작해 10여년을 넘긴 사람도 20명에 이른다. 스님들의 만행처럼, 전국의 시민선원을 다니며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범어사에서 지속적으로 결제와 산철결제를 보내는 이들도 많다. 재가자지만 출가수행승 못지않게 결제와 해제가 없는 쉼없는 정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제 3개월 동안 출가자와 똑같은 정진으로 생사심을 끊고 부처가 되고자 큰 욕심을 일으킨 보살들. 몸의 고달픔도 자식 걱정, 집안 걱정도 모두 '이뭣꼬?' 화두에 흔적조차 없이 녹아 버리는듯 싶다.

마음의 일을 끊어버린 이들의 철저하고 사무치는 정진은 음력 12월 1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입주일 철야용맹정진으로 여일하게 이어진다.

글=김원우 천미희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90 선원 2천여 스님 치열한 수행정진

수선회등 50개 재가선방 불자들도

◇15개월 가행정진에 들어간 태백선원. 선방앞 서 있는 스님이 선원장 고우스님.

99년부터 안거기간에 4시간만 자면서 하루 15시간씩 가행정진(加行精進, 보통 참선수행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박차를

태백선원, 15개월간 가행정진

화림원 출·재가자 50명 교계 첫 금강경 결제

가해 정진 하는 것)을 해온 태백산 각화사 태백선원이 이번 동안거에는 '15개월 가행정진'에 입재했다.

각화사는 10년을 목표로 하루 3시간만 자고 15시간씩 정진하는 가행정진에 들어갔다. 태백선원 가행정진은 새벽 1시에 일어나 점심공양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전과 오후, 저녁시간등 선(禪) 참구에만 매달리게 된다. 해제는 2004년 음력 1월 보름. 이번에 입재한 수좌는 큰방 26명 동암 5명 등 총 31명에 달한다.

선원장 고우(古愚)스님은 "큰방에서 수행하는 수좌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수행 염심히 하여 종단과 불교발전의 기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실상사 화림원(원감 재연)도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주 교재로 한 경전결제에 들어갔다. 20여명의 스님과 재가불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증명법사 통광스님(방계사 승가대학 학장)의 기조논문을 시작으로 2월 8일까지 진행된다.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실시되는 이번 금강경 결제는 각묵 스님이 논주가 되어 직접 번역하고 해설한 〈금강경역해〉를 주 교재로 제방의 선지식과 강사, 대중이 참여하여 현존하는 산스크리트 본과 다양한 번역, 한문주석서의 교학적 이해와 선종의 입장을 살피는 열띤 논강으로 진행된다.

원감 재연스님은 "소의 경전인 금강경의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수행이라야 말로 선종을 표방하는 조계종의 종지종풍을 제대로 잇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